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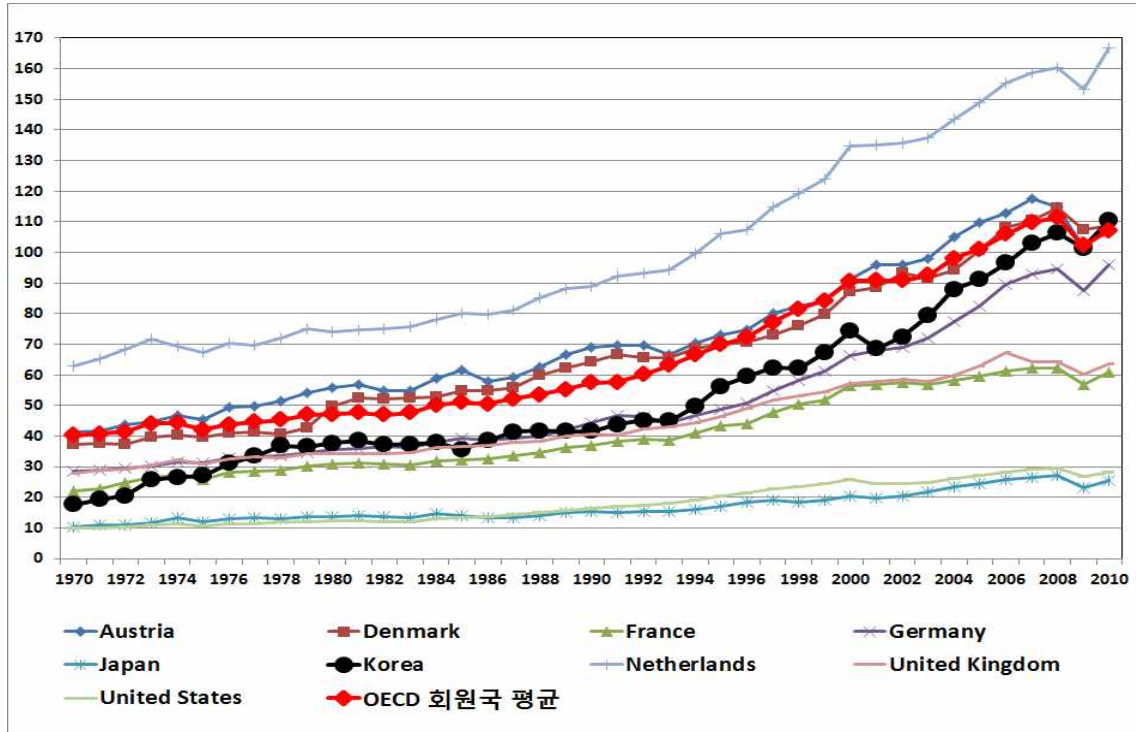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

최근 유럽위기로 인해 한국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 달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113.2%로 역대최고를 달성했다고 보도하며,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변동 충격이 국내실물경기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를 낮추어서 글로벌 재정위기의 악재에 대처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를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나타나 일부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은 결코 아니다. 한편 주요언론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외의존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대외악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수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 최근 유럽위기 등 대외악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함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올해 들어 수출증가율은 2월과 6월을 제외하고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
 -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변동 충격이 국내실물경기를 악화시킨다고 지적
 -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를 낮추어서 대외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 독일, 덴마크 등 OECD 주요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OECD 평균 수준
 -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1970년 이후 2009년까지는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2010년 처음으로 OECD 평균(107%) 수준인 110%에 도달
 - OECD 회원국 평균 대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도 OECD 평균 추세와 유사

<그림 1> OECD 회원국 및 주요국가 대외의존도 추이

(단위: %)



자료: OECD

- 한국의 대외의존도 수준은 독일과 유사하며 2000년대 이후 독일과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증가함
 -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1970-2000년 사이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유사한 대외의존도를 유지
 - 2000년 이후 한국과 독일의 대외의존도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20%포인트 이상 증가
 - 그러나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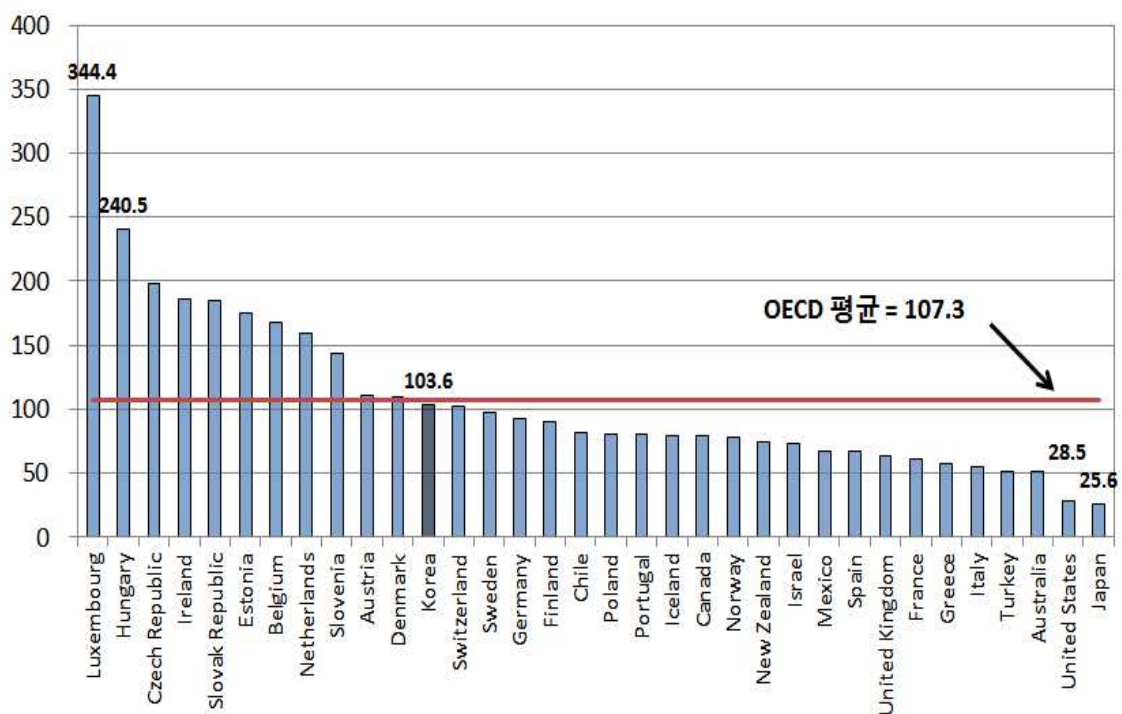
- 미국과 일본의 대외의존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음
 - 미국과 일본은 1970년 이후 대외의존도가 30%이상 상회한 적이 없는 OECD 국가 중 가장 대외의존도가 낮은 나라들임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한 2006-2010년 사이 한국의 연평균 대외의존도 수준은 OECD 국가평균 보다 오히려 낮음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한 2006-2010년 사이 5년 평균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103.6%로 OECD 국가평균인 107.3% 보다도 오히려 낮음

<그림 2> OECD 회원국의 대외의존도 수준(2006-2010년 평균)

(단위: %)



자료: OECD

□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OECD 국가평균 수준이므로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국내총생산 대비 대외교역규모 유지를 위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수확충에 주력해야 함